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 - 주 5일제 도입의 ‘ 아킬레스건 ’

- 건설 현장 실무 관계자 설문조사, 근무 일수 단축 여부 찬반 양론 ‘ 팽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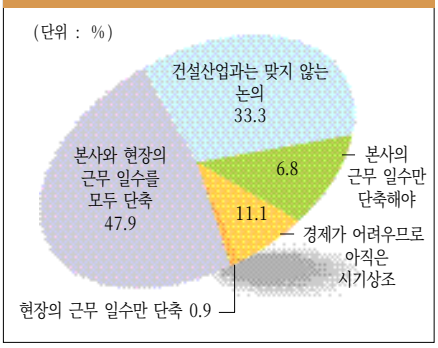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정부의 단독 추진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현재 주 5일 근무제는 대개 외국인 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미 일부 건설업체에서도 실시하고는 있지만 본사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라고 해도 본사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별 차이가 없다.

근무 일수 단축에 따라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바로 건설 현장이다. 현재 현장은 기후의 장해가 없는 한 휴일 없이 주 70 시간의 생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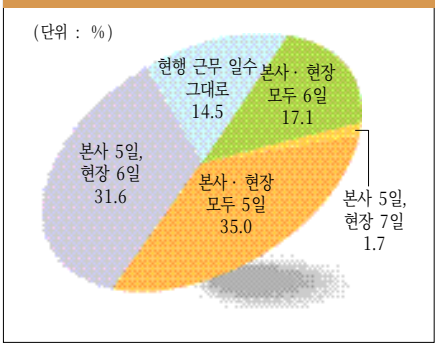
하지만 건설 현장에 대한 근무 일수 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 여부나 이것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하지만 도입 시점에 대한 이견은 있으되 근무 형태의 변화가 사회적 흐름으로 된 상황에서 건설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근무 일수 단축에 관한 기초 사항에 대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의 응답자는 원도급자의 건설 현장 실무 관리자(117 명)로 한정하였다. 이들은 현장에서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흐름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 근무 형태가 변화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현실적 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및 공사 규모별로는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공사 종류별로는 토목 현장이 53.8 % 로 가장 많다.

근무 일수 단축에 관한 견해



바람직한 근무 일수 단축 형태



근무 일수 단축에 대해 찬반 양분

근무 일수 단축 논의에 대해 응답자의 47.9 % 는 ‘ 본사와 현장의 근로 일수를 모두 단축해야 한다 ’고 대답했으나 그와 상반되는 응답도 44.4 % 에 달해 의견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대 견해 중 근무 일수 단축 논의는 ‘ 건설산업과는 맞지 않는다 ’는 극단적인 의견도 33.3 % 나 되었다. 바람직한 근무 일수 단축 형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0 % 가 ‘ 본사 및 현장 모두 주 5일 근무 ’를, 그리고 31.6 % 는 ‘ 본사는 주 5일, 현장은 주 6일 근무 ’라고 대답했다.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 현장의 경우 ‘ 본사 및 현장 모두 주 6일 근무 ’라는 응답이 34.5 % 로서 가장 많은 데 비해 플랜트 현장의 경우 ‘ 본사 및 현장 모두 주 5일 근무 ’라는 응답이 54.2 % 로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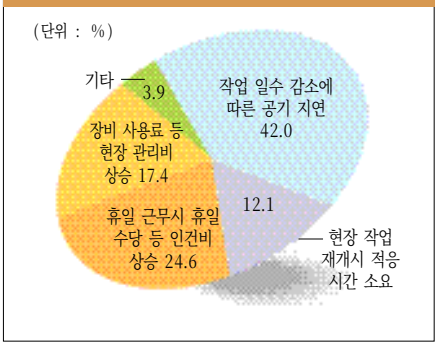
부정적 효과 … 공기 지연, 비용 상승

근무 일수를 단축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로는 42.0 % 의 응답자가 ‘ 작업 일수 감소에 따른 공기 지연 ’을 꼽았으며, 그 다음은 ‘ 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 등 인건비 상승 ’과 ‘ 장 사용료 등 현 장관리비 상승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일수를 단축할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로는 근소한 차이로 ‘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로 인력 유입 촉진 ’과 ‘ 노동 생산성 향상 ’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이 품질 제고나 산재 사고 감소보다 이미지 제고에 의한 인력 유입 촉진을 더 중요한 효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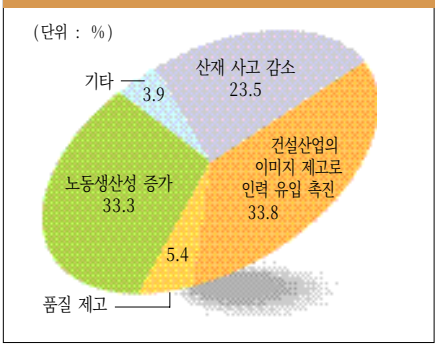
근무 일수 단축시의 영향은

건설 현장에 주 6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산재 사고 감소에 68.4 %, 노동 생산성 향상에 65.8 %, 공사 기간 지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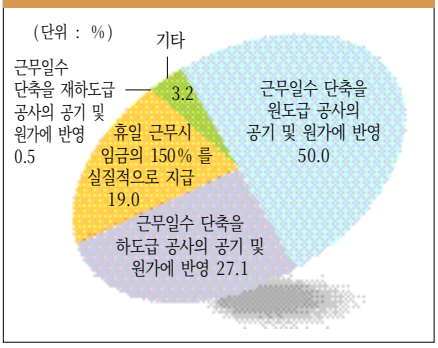
근무 일수 단축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근무 일수 단축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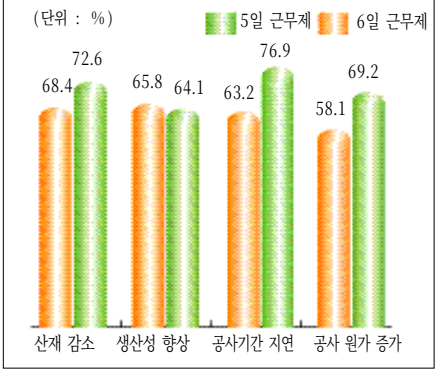
근무 일수 단축이 건설 현장에 정착되기 위한 전제



63.2%, 공사 원가 증가에 58.1% 의 응답자가 ‘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정확하지는 않지만 각 요인별 변화 정도를 개략적으로 질문해본 결과 주 6일 근무제 도입시 현행의 근무 형태에 비해 산재 사고는 12.1% 감소, 노동 생산성은 12.5% 향상, 공사 기간은 12.1% 지연, 공사 원가는 1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는 건설 현장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의 영향을 묻자 산재 사고 감소에 72.6%, 노동 생산성 향상에 64.1%, 공사 기간 지연에 76.9%, 공사 원가 증가에 69.2% 의 응답자가 ‘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특이한 것은 주 6일을 근무하는 것보다 5일을 근무할 경우 노동 생산성이 향상할 것이라는 응답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각 요인별 변화 정도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현행의 근무 형태에 비해 산재 사고는 17.5% 감소, 노동 생산성은 15.9% 향상, 공사 기간은 14.0% 지연, 공사 원가는 13.4%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근무 일수 단축시의 영향



미니 인터뷰 김주철 울트라건설(주) 관리본부 이사

“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

건설업체로서는 획기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는데 그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지난 9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 5일 근무는 우선적으로 본사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기존 발주처와의 계약에 따른 공기 문제가 걸려 있는데다 협력업체 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들이 다소 부정적이어서 당장 실시하기 곤란했기 때문이지요. 본사는 종전 토요일 근무에서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3 4시간에 불과했으며, 경조사 등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요. 토요일의 형식적인 근무를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월차를 소진한 형태의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연·월차 수당, 광열비 등 간접 비용의 절감도 요인으로 작용했지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 이후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요?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는 다소 불만이 있지만 직원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는 분위기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근무를 하고 나서부터는 월요병 증세가 없어졌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금요일에 미리 본사와 토요일 업무를 협의해 처리하고 주말에는 여유를 갖고 근무하는 등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도입되더라도 건설업체들이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이 이미 토요 격주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가 법제화된다면 본사의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전면 시행이 가능하겠지만 건설 현장은 현장 소장의 재량에 따라 종전 본사가 실시하던 토요 격주 휴무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건설업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주 40시간 근로의 명실상부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실질 임금의 하락 없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데 대한 경영진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집중근무제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 해소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발주기관은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주 5일 근무 기준 산정에 따라 제대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 5일 근무의 혜택이 협력업체 직원이나 일용 근로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지요.

공기 및 원가에 반영되어야

건설 현장에 정착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50.0% 의 응답자가 ‘ 근무 일수 단축을 원도급 공사의 공기 및 원가에 반영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발주자의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근무 일수 변동의 영향을 감안하여 공기 및 원가를 책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 근무 일수 단축을 하도급 공사의 공기 및 원가에 반영 ’해야 한다는 것과 ‘ 휴일 근무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150% 를 실질적으로 지급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순서는 공사 규모 및 종류를 불문하고 공통적이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